

가족의 구조·기능과 청소년비행*

김준호^{**} · 안호용^{***} · 김선에^{****} · 김선업^{*****}

이 연구는 경험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청소년비행과 가족관련 요인과의 관련성을 탐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련 변인을 가족의 구조와 관련된 변인, 가족의 기능적 요인과 관련된 변인, 확대가족적 변인으로 나누어 그 각각이 어떻게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중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의 일면만을 분석하는 대신에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가족이 확대가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논의에 포함하기 위하여 확대가족 관련 변인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였다.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가지는 불만이 자녀의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일반적 기능 측면에서는 규범과 정서적 안정의 제공에 실패할 경우 지위비행의 발생 확률이 높고, 가족원간의 상호 신뢰를 상실할 때 중비행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족원과의 관계는 단순한 접촉보다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친밀성이 특히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가치의 차원에서는 가족중심주의와 가족전통주의는 비행을 감소시키고, 가부장주의는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비행보다는 지위비행 쪽이 가족관련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인별로 보면 지위비행은 부모감독이나 대화 등 부모와 자녀의 유대적 관계와 더 많은 관련을 맺고 있고, 중비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

***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

**** 나사렛대학교 아동학 교수

***** 한국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 사회학

행은 부부폭력이나 규범 준수 등 가족 내부의 부정적 요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대가족 관련 요인의 종합적 분석에 의하면, 구체적인 결속과 연대가 나타날 때 비행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는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비행 연구에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 머리말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청소년비행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산업화된 사회로 급격한 사회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문제는 서구의 산업화된 사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비록 공식 통계상으로 청소년 범죄가 그다지 급격히 증가한다고 보기는 힘들으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청소년비행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함부로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버릇없는 행동은 물론이고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청소년들의 끔찍한 범죄 기사를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우려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 청소년기의 특징 중의 하나인 또래집단의 성격을 강조하여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를 비롯하여, 한국사회에서 입시를 둘러싼 교육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비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시각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회화가 되는 사회제도이다. 여기에서 부모를 통하여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배우고 내면화하여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인으로 성장한다. 가족을 비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때 그 결과로서 비행이 나타난다고 보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족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하는가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있다. 가난한 가정 출신의 비행소년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강조하기도 하고,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사람이 없을 때 야기될 수 있는 현상에 주안점을 두기도 하며, 출생순위, 가족의 크기 등에 주안점을 두고 비행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들을 보다 더 거시적으로 보면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하여 비행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적인 면보다는 외적인 특성과 유형에 관심을 기울인다. 비행에 대한 초기의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의 연구 경향은 구조적인 특성보다는 가족의 기능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attachment), 부모의 양육 태도, 감독 등을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는 이러한 입장들의 공통점은 가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 할 때, 즉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자녀의 비행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과 비행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는, 가족의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때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때로는 대립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지속되어 왔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특히 본격적인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족의 의미가 크게 변모함에 따라서 가족관련 청소년비행 연구들은 가족 요인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효과를 특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가족 바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아울러 가족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가족이 비행에 대해 지니는 의의를 새롭게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경험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자녀 비행과 가족관련 요인과의 관련성을 탐구 ·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의 일면적 측면만을 분석하는 대신에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비행에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적 목적이다.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확대가족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핵가족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국의 핵가족은 서구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부부중심

가족과는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조부모나 부모의 형제들과 같이 동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과의 교류가 빈번하며 가족성원들간에 서로 관심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확대가족 유사 요인들이 자녀의 비행에도 특정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형태의 측면에서 확대가족 관련 변인을 다루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확대가족의 가족관계적 기능과 가족가치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확대가족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가족구조 :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 결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 결손을 비롯하여 출생 순위, 가족의 크기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들의 비행과의 관계를 설명해 왔던 접근들은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서 비행을 설명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가족원 사이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면보다는 외적 특성과 유형에 관심을 기울인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 결손의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족구조와 자녀비행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행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비행의 설명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어 왔다. 경험적 연구에서 가족의 계층적 위치와 비행간의 관련성이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었지만, 연구 결과에 있어서 일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즉, 공식통계의 경우에 대부분의 범죄자는 물론이고 비행소년이 하층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많은 경험적인 연구는 계층과 비행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일찍이 나이와 그 동료들은, 자기보고식 비행척도를 사용하여, 계층과

비행간의 상관성이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미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Nye *et al.*, 1958). 이후에 에릭슨과 엠페이의 연구(Erickson and Empey, 1963)나 보스의 연구(Voss, 1966)에서도 하층에 비행이 집중되어 있다는 가설은 검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크바라세우스는 비행청소년은 하층 출신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Kvaraceus, 1944), 클라크와 웨니거는 자기보고식 연구에서 심각한 중비행의 경우에는 사회계층과 비행간에 강한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Clark and Wenniger, 1962). 이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 연구는 이후에도 드물지 않다(Reiss and Rhodes, 1961).

사회계층과 자녀비행에 관한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티틀과 그의 동료들은 양자간에 미약한 부적 상관관계만 발견되었다고 하였지만(Tittle *et al.*, 1978), 브레이트웨이트는 기존의 47개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중 18개에서는 관계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7개는 남녀 혹은 비행유형에 따라 관련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Braithwaite, 1981). 이와 같이 2차 자료를 재분석하거나 종합한 연구에서도 미약하나마 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은 연구도 있고(Hindelang *et al.*, 1979; Tittle and Meiyer, 1991), 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연구도 있어(Clelland and Carter, 1980; Thornberry and Farnworth, 1982) 재분석한 결과에서도 일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김준호, 1990 ; 김준호 · 이성식, 1987).

결국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공식통계상에서는 계층과 비행간에 강한 상관성이 존재하나 자기보고식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상관성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비행과 같이 그 정도가 심각한 비행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에는, 비록 자기보고식 연구라고 하여도 적지 않은 상관성이 발견되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 결손과 비행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한 가족과 비행간의 관련성은 청소년 비행의 설명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결손가족과 비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 역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

로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결손가족을 비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한 맨글드의 선구적 연구 이후에 후속 연구들은 결손가정이 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왔다(Glueck and Glueck, 1950).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의 연구들은 결손가족이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니이는 문제가 없는 결손가족보다는 문제가 있는 일반 가족이 비행소년을 만든다고 지적하고, 문제 있는 가족을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결손가족과 비행간의 상관성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결손 이전에 이미 많은 긴장이 선행한다는 점에서 긴장을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재분석한 연구 결과들은 결손가족과 비행의 관계가 전혀 없지 않으나 그 관계는 미약하며 양자 사이의 관계가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결손가족은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원인이며 양자 사이에 미약한 관계가 일부 발견되지만 중비행보다는 사소한 비행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결손의 영향력이 성별로 다르다는, 즉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에게 그 영향력이 크다는 근거가 발견되었으며(Sterne, 1964; Toby, 1964), 비행의 종류에 따라서 결손가족의 효과가 같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결손과 사망으로 인한 결손 등 결손의 유형별로 비행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결국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결손가족과 비행의 일반적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일부 양자간 관련성이 발견된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특정화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부모-자녀관계 :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비행에 관한 초기의 경험적 연구들이 주로 가족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한 데 비해서 1960년대 이후의 연구 경향은 구조적 특성보다는 가족의 기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족의 기능적 요인과 비행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그 가운데 부모-자녀관계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방식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전통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이후, 부모의 자

녀에 대한 통제라는 관점에서 양육방식에 대해 보다 더 일반화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인 입장을 취하는 통제이론가들(Nye, 1958; Hirschi, 1969; Krohn and Massey, 1980; Junger and Marshall, 1997 등)은 부모-자녀관계 중의 애착, 존경, 영향 등 내적인 측면을 위주로 하는 내적통제를 강조하는 한편,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을 취하는 통제이론가들(Patterson, 1982; Patterson and Stouthamer-Loeber, 1984)은 양육태도, 훈육방식, 상벌 등 직접적인 통제에 보다 더 관심을 보여왔다.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 제시하는 부모-자녀간의 감정적인 친밀도에 기반한 간접통제와 패터슨의 강압이론(coersion theory)에서 강조하는 부모의 직접적인 훈육방법 및 기술, 감독 등으로 대변되는 직접통제는 서로 대립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이들 모두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가족의 형태보다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비행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강조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문제가 없는 결혼가족보다는 문제가 있는 일반 가족이 비행소년을 만든다는 니이의 말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들의 공통점은 가족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자녀의 비행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간 관계, 부모의 감독, 그리고 훈육방식을 중심으로 가족의 기능과 자녀비행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부 불화와 자녀비행

부부간 불화는 가족성원들간의 관계 가운데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부간 불화는 아동의 공격적 행동 뿐 아니라 성인 범죄의 선행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는데(McCord, 1979), 부부간 갈등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모로 하여금 부적절한 자녀관리를 하도록 하며 종국에 가서는 자녀가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부부간 불화는 또한 자녀에 대한 원만한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어렵게 한다. 결혼에 만족하고 남편에게 감정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

인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있어서도 원만한 반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인은 그만큼 자녀에 소홀하게 되어 자녀의 적절한 훈육 기회를 가지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비행은 방치하게 된다. 나아가 부부간 불화는 자녀학대를 낳게 된다.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부일수록 자녀를 처벌하거나 아니면 자녀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자녀의 이상 행동을 유발하기가 쉽다. 부부 불화와 아동학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변인이며 가정에서 학대를 당할수록 자녀의 비행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부부간 불화를 비롯하여 갈등적 가족관계는 전체적인 가정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하며 자녀에게도 갈등적인 상황을 낳음으로써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자녀가 부정적 행위에 빠져들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2)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주지하듯이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유대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사회화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다. 허쉬로 대표되는 사회통제이론은 기존 이론이 가정하는 규범준수 행위의 정상성을 거부하고 규범위반 행위의 정상성을 주장한다. 즉 사람이 왜 규범을 어기는가의 문제로부터 왜 사람이 규범을 따르는가의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규범을 준수하기보다는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사회통제이론은 비행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화되었거나 끊어졌을 때라고 가정한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개인이 사회에 대한 유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회에 대한 유대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통제의 기제로 작용하여 비행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허쉬가 제시하는 사회통제의 4 가지 요소 중 애착(attachment)은 부모-자녀간의 유대의 기반이 된다. 허쉬는 애착의 대상으로 부모, 학교, 동료집단을 들고 있는데 애착이란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특히 자녀가 부모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로 규정된다. 이러한 애착은 직접적인 통제기제라 할 수 있는 감독이나 훈육과는 달리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이고 내면화된 관계의 일면을 가리킨다. 환원하면 감독과 훈육은 부모가 자녀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감독을 하거나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등 직접적인 반응을 통하여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라면, 애착은 설사 부모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옆에 없다고 하여도 자녀가 부모를 가상적으로 인식하여 부모가 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자녀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지칭한다.

간접통제가 직접통제에 비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는 간접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발달심리학에서는 직접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양자간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간접통제와 직접통제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간접통제를 직접통제의 선행요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본다면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관계가 성립했을 경우에 부모의 직접통제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모의 감독

부모의 역할 중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감독자로서의 역할이다. 감독(monitering)은 간접통제를 강조하는 허쉬류의 사회통제이론에는 물론이고 직접통제를 강조하는 패터슨류의 학풍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감독은 한 마디로 자녀의 행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를 의미한다. 즉, 부모가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자녀의 활동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말한다(Hirschi, 1969; Patterson, 1982; Parke and Slaby, 1984).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활동이나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친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혹은 집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효과적으로 훈육하기 힘들고 더 나아가 자녀가 비행 성향이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증가한다.

부모의 감독과 비행간의 상관성은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뒷받침된 바 있다. 비행소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Hirschi, 1969; McCord, 1979; Wilson, 1980; Pulkkinen, 1981) 자녀가 친구를 선택하는 데 적절한 조절을 잘 못한다는 것이다(Loeber and Stouthamer-Loeber, 1986). 특히 윌슨의 연구는 부모의 감독과 비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준다(Wilson and Herrnstein, 1985). 일반적으로 비행은 주위 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다 해서 모든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데, 이때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주위 환경의 영향력을 완충시키며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감독은 특히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 초기, 중기에 걸친 성장 과정에 아동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Patterson, *et al.*, 1992).

4) 훈육과 가정규칙

훈육은 감독과 더불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접통제이다. 훈육은 주로 상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부모의 적절한 처벌과 자녀의 문제 행동 사이의 관련성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부모가 합리적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처벌이 아동의 문제 행동의 발생을 억제한다. 특히 부모가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훈육을 사용하고, 또한 엄격한 처벌과 같은 훈육을 사용하기보다는 설명과 이해에 기초하여 행동 기준의 내면화를 통해서 훈육한다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통제효과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하지 못할 때는 문제 행동이 증가한다. 부적절한 훈육방식의 구체적 예로 먼저 부모의 방임이나 방치를 들 수 있다. 방임은 일차적으로 자녀를 너무 자유롭고 분명한 한계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문제성 있는 행동이 증가하도록 한다. 부모의 과도한 신체적 처벌도 자녀의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신체적인 처벌을 많이 할수록 자녀에게서 공격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부모의 처벌은 그 당시는 순종을 이끌지만 행동 기준을 내면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애

정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잠시 통제에 따르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비행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나아가 부모의 일관성 없는 훈육 역시 자녀 비행의 배경으로 지적되어 왔다. 평소에 야단을 치지 않아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둔 부모가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의 사소한 행동에도 심한 처벌을 하게 될 때 자녀가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Baumrind, 1971). 일관성 없는 훈육의 사례를 보면, 부모가 상황에 따라 화를 내는 경우, 자녀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때에 따라 벌을 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가정 내에 통용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준수하는지 여부도 자녀비행과 관련된 요인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비록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규칙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다. 문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제 가정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일관성 있는 가정 규칙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가족원의 역할에 대한 규정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가정규칙의 부재와 문제아동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데 신체적 폭력이 빈번히 사용되어지는 가족에서 가정 내 규칙의 결여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

3. 확대가족

지금까지 살펴본 설명들은 부부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확대가족과 자녀비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확대가족이 자녀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와의 동거는 앞서 설명한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 상응하는 것으로 확대가족의 대표적인 형태적 특성이다.

앞서의 부부가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부모 또는 삼세대 방계가족 성원과의 실질적인 관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조부모와의 동거가 위에서 설명한 가족의 구조적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조부

모 등 확대가족원과의 관계는 가족기능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확대가족 혹은 핵가족을 지향하는 가족가치가 자녀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포함하여 확대가족과 자녀비행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조부모와의 동거

먼저,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을 조부모와 동거하는 전형적인 확대가족 상황을 중심으로 규정할 수 있다. 확대가족의 상황에서 조부모의 위치는 가부장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가족 내의 조부모의 존재로 인하여 가족성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행사됨을 뜻한다. 따라서 손자 세대의 행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규범적인 일탈 행위에 강력한 억제 요인을 행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부모와의 동거가 손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의 보완이다. 많은 경우에 손자·손녀는 부모보다는 조부모에게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부모-자녀간의 갈등관계가 상당한 수준 완충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조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결손가족이 되었을 경우에 핵가족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조부모가 생존하여 같이 산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다. 사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감독하기가 사실상 힘든 경우 조부모가 가까이 있어 손자녀를 보살핀다면 청소년이 나쁜 길로 빠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요컨대 조부모와의 동거로 손자녀 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면 부모 대신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녀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가족간 유대 및 관계

그러나 앞서 가족 구조 설명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단순히 조부모와의 동거가 조부모 역할의 실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지하듯이

전통적인 확대가족과 오늘날의 조부모 동거 가족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 조부모는 가부장적 권위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조부모는 부양 대상으로 그 위상이 격화된 경우가 허다하다. 즉 집안에서의 역할이 주변적인 상태에 그친다면 그만큼 손자녀에 대해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조부모를 비롯한 방계 구성원들과의 교류의 정도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 등의 관계의 질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조부모가 동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주 접촉함으로써 손자녀에 대하여 관여하는 정도가 커진다면, 자녀행동에 대한 통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친밀감을 비롯하여 확대가족 구성원들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앞서 부모-자녀관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으로써 비행을 억제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3) 가족가치

가족가치는 가족 형태의 측면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가족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나 지향을 포함한다. 물론 가족의 형태와 가족가치는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여러 요소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 변화의 방향이 항상 일정하다는 근거는 없다(Goode, 1970). 즉 형태적으로는 확대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부 중심적 가치나 규범을 가질 수 있으며 이와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안호용, 1996). 가족가치는 가족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일 뿐만 아니라 실제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녀행동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가치의 측면에서 부부중심가족 유형이 개인 중심적 가치를 지향한다면 확대가족은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 중심적 가치를 강조한다. 개인 중심적 가족가치는 가족 구성원은 상호 자유로운 인간의 대등한 결합으로서 개개인의 인격의 독립이 확보되며, 가족 내의 민주적 질서와 상호 합리적 조정의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민주성과 평등성이 증가할 수 있으나 가족 연대의 약화와 가족해체의 개연성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가족 중심적 가치는 혈연 중심의 가족이기주의가 나타나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공동체적 연대와 상호협조가 가능하며, 도덕적 가족부양 체제를 유지하고 집단 내부의 강한 응집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자녀의 가정 교육과 사회통제에 있어서 자녀의 비행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또한 가족의 규범이 핵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가문이나 조상의 명예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대가족 관련 가치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컨대 가문이나 가족의 전통에 대한 강조는 가족 구성원들의 규범적 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자녀의 비규범적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가족 내의 결속과 가족 전통에 대한 강조는 가장에 대한 권위를 중시하는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부장제적 태도는 부모-자녀관계를 자식의 일방적인 효의 덕을 강조하는 권위-복종의 관계로 규정하며 성역할의 차이를 정당화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가부장제는 한편으로는 개인에 대한 엄한 통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자녀 비행에 대한 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적인 가족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이나 반발로 자녀들이 가족 바깥에 머물게 됨으로써 오히려 비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III.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1. 연구주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구조적 요인과 자녀비행과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 결손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

를 각각 분석하기로 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부모의 교육수준, 수입, 주관적 계층지위, 그리고 가족의 경제형편에 대한 불만 정도를 포함한다.

둘째는 가족 기능과 자녀비행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먼저 가족 내에서 일반적 기능이 수행되는 정도와 자녀비행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다음, 가족관계의 질, 부모의 감독과 대화, 가정규범, 훈육방식 등이 자녀비행에 대해 가지는 관련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가족관계의 질에는 부모에 대한 적개심, 부부갈등, 부부폭력을, 가정규범에는 가정규범의 존재 유무와 준수 정도를, 그리고 부모의 훈육방식에는 가정 규칙의 준수 여부, 부모의 체벌 여부, 칭찬 여부를 각각 포함한다.

셋째는 가족의 구조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행에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들의 효과를 비교 평가하기로 한다. 구조적인 요인과 기능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 분석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넷째는 확대가족과 손자녀 비행과의 관련성 분석이다. 확대가족요인은 가족의 구조, 기능 및 가치의 측면을 포함한다. 구조적 요인으로 조부모와의 동거를 비롯하여 부모의 형제자매 등 확대가족 구성원과의 접촉 정도와 자녀비행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확대가족의 기능적 요인으로는 확대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의 질과 자녀비행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나아가 가족가치가 자녀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가족주의적 가치, 가족전통주의, 가부장주의의 세 가지 가족가치와 자녀비행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및 측정

1) 표본 및 조사

본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등학생이며 성, 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다시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 지역(강남과 강북)의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표본을 할당한 다음, 학급을 표본의 최종 추출 단위로 표집하였다. 총 52개 학교를 추출하였으며 각 학교 당 한 학급을 조사지점으로 정한 다음, 학급 인원 전부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실시는 조사자가 해당 학교에서 선생님의 협조를 받아 조사원이 학급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후, 조사원의 설명 후에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입식 방법과 집단조사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편집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최종 분석대상 사례는 총 2,109부이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1) 비행의 측정

1995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비행 척도를 이용하여 20개 비행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항목들을 요인분석 방법을 이용, 구분한 결과 전체 항목이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금지되는 지위비행과 형법에 저촉되는 중비행의 2가지로 분류되었다. 지위비행에 포함된 항목은 흡연, 음주, 락카페 출입, 비디오방 출입, 무단결석 등 6개이며 중비행은 가출, 본드나 가스 흡입, 환각약품 사용, 학교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가게에 들어가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패싸움, 남의 자동차 손상, 오토바이 타고 과속하기,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여 돈이나 물건 훔치기, 술에 취한 어른에게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타인 폭행의 14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했는데 두 가지 비행척도의 Cronbach's α 의 값은 각각 0.84와 0.94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여준다.

(2) 주요 설명 변수의 측정

① 가족 결손 :

가족 결손의 여부에 따라서 결손가족과 비결손가족으로 구분하였다. 즉, 친부모 가정과 의붓부모가 있는 가족을 묶어 비결손가족으로 분류하고, 부모 중 한사람이나 형제·부조·모조가 부모가 없는 청소년·소녀 가정 가족은 결손가족으로 분류하였다.

② 가족기능 관련 변인 :

부부불화는 “부모님이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의 문항으로, 부부간 폭력은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신다”의 문항으로, 부모와 적대적 관계는 “부모님이 없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밉고 싫다”, “부모님을 증오했다”, “친부모가 아닌지 생각된다”의 4문항으로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했다.

가정규칙의 유무는 “부모님께서 자녀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 놓으신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4점 척도로 물었으며, 그 준수 여부는 “부모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느 정도 지키는지”로, 체벌은 “잘못해서 벌을 줄 때 부모님이 어느 정도 때리는지”로, 칭찬은 “부모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행동했을 때 칭찬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로 각각 4점 척도로 응답토록 했다.

부모와의 대화는 “허물없이 이야기한다”, “자주 대화한다”, “밖의 일과 생각을 얘기한다”, “서로 잘 이해한다”의 4개 문항으로, 부모의 감독 척도는 “부모님이 자녀가 외출 시 무엇을 하는지 안다”, “외출 시 누구와 있는지 안다”, “외출 장소를 안다”, “귀가 시간을 안다”의 4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③ 확대가족 변인 : 접촉 및 친밀도

친족원과의 접촉은 “평소에 친족원들(조부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친족원 별로 각각 조사하였다.

조부모와의 친밀도는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할머니)가 사시는 곳 가까이 살고 싶다”, “할아버지(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또래의 친구들보다 할아버지(할머니)와 더 가까이 지낸다”의 세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④ 확대가족 변인 : 가족가치

가족가치는 자녀 스스로의 응답을 통해서 측정하였는데 가족중심주의는 “부모님이 반대하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다”,

“자식을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는 것은 곧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의 세 항목으로 조사했다. 가족전통주의는 “조상의 제사를 빠지지 않고 모신다”, “조상의 업적이나 행적을 자랑스러워 한다”의 두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가부장주의는 “딸보다 아들을 선호한다”, “집안문제는 가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며느리가 시집간 딸보다 가깝고 중요한 가족이다”, “어머니 쪽 보다는 아버지 쪽 친척을 주로 방문한다”로 조사하였다.

IV. 분 석

1. 가족구조와 자녀비행

1)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행간의 상관성은 지위비행의 경우에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부모의 교육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위비행의 정도가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자녀비행에 대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아버지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교육정도	가족의 월소득	스스로 평가한 가정형편	상수	R ²
지위비행	-.02	-.06*	.09**	-.08**	9.87**	.05**
중비행	-.04	-.03	-.01	.00	8.64*	.02*

* p<.05 ** p<.01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비행의 관계 분석에서는 가족의 월수입과 지위 비행과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가족의 월수입이 높은 가족일수록 오히려 자녀의 지위비행 정도가 더 높다. 여기서 자녀가 알고 있는 가정의 월수입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 자녀들이 심각한 비행을 더 많이 한다는 주장은 본 분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월수입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평가한 가족의 생활형편은 지위비행과 역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자기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느낀 자녀가 지위비행을 많이 저지른다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인

생활형편과는 관계없이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 지위비행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분석은(<표 2>)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불만과 주관적 계층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한 결과인데 스스로 평가한 경제형편의 높낮이보다 가정의 경제적 현실에 대한 불만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요컨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를 경미한 비행으로 이끄는 부분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보다 심각한 비행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객관적 형편보다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문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주관적 계층 및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불만과 자녀의 지위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계층	경제적 형편에 대한 불만	상수	R ²
지위비행	-.05*	.17**	6.95**	.04**

* p<.05 ** p<.01

2) 형태적 결손

본 연구에서 가족 결손은, 이미 언급한 바대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가정과 편부모가정으로 규정하였으며 비결손가족에는 친부모가족에 재혼가족을 포함하였다. 가족결손과 비행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표 3>의 결과를 보면 결손가족의 자녀가 비결손가족 자녀에 비해서 사소한 지위비행은 더 하지만 중비행에는 차이가 없다.

<표 3> 가족 결손여부와 비행

	결손가족	비결손가족	F 값
지위비행	2.64	1.86	7.95*
중비행	.96	.81	.41

* p<.05

결손 유형에 따라서 두 부모가 모두 없는 가족, 한쪽 부모만 있는 편부모 가족, 재혼가족으로 나누어 비행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지위비행은 두 부모가 모두 없는 가족, 편부모가족, 재혼가족의 순으로 많이 저지르고 있지만 중비행의 경우에 결손 유형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4> 결손유형에 따른 비행정도

	친부모가족	재혼가족	편부모가족	부모 없음	F값
지위비행	1.84	2.50	2.69	2.86	3.34*
중비행	.79	1.07	.96	.95	.22

* $p<.05$

부모가 없는 결손가족의 자녀가 비결손가족 자녀에 비해 지위비행을 다소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부모의 부재 자체가 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손가정 자녀의 비행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모가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결손과 부모감독의 상관성을 분석한 <표 5>의 결과는 예상대로 결손에 따라 부모의 감독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손으로 인한 비행의 증가는 부모 자체의 부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로부터 비롯된 부모의 감독이나 관심의 약화에서 비롯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부모가 없다하더라도 관심이나 감독이 유지된다면 비행을 억제 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있다 해도 부모의 감독이나 관심이 부족하다면 비행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가족 결손 여부와 부모감독

	결손가족	비결손가족	t값
부모의 감독	12.49	14.09	24.11**

** $p<.01$

2. 가족의 기능적 요인과 자녀비행

1) 가족의 일반적 기능과 자녀비행

가족이 담당하는 여러 기능 가운데 자녀의 비행성과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은 적절한 규범제공과 사회화 기능이며 충분한 물질적 지원은 비행성과 관계가 없다. 물질적 지원, 가족원간의 상호인정과 신뢰, 규범제공과 사회화, 정서적 안정의 일반적인 기능이 가정에서 수행되는 정도와 자녀비행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한 <표 6>의 결과에서 규범과 사회화 기능은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지위비행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서적 안정은 지위비행과 상관성이 있는 데 비해서 가족구성원 간 신뢰의 부족은 보다 심각한 비행인 중비행과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에서 아동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거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지 못할 때 사소한 비행을 야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들간 관계가 원만치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보다 심각한 비행이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가족의 일반적 기능의 자녀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물질적 지원	상호인정 /신뢰	규범제공 사회화	정서적 안정	상수	R ²
지위비행	-.02	-.02	-.12**	-.08*	6.25**	.04**
중비행	-.01	-.07*	-.06*	-.01	13.78**	.02**

* p<.05 ** p<.01

2) 가족관계 요인

부부간 관계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부정적 관계가 자녀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자. 예상대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불화가 빈번할수록 자녀비행이 증가한다(<표 7>). 부부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는 적절한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의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고 가정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악화로 자녀가 가정 바깥으로 떠돌면서 비행이 증가한 결과로 보여진다. 지위비행이 일반적인 부부갈등이나 부부불화에 따라 증가하는 데 비해서 심각한 중비행은 부부폭력과 상관성이 특히 높다. 부부갈등이 구타

와 같은 폭력적인 형태로 자녀에게 노출됨으로써 보다 심각한 비행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부부불화가 자녀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누적적이다. 부부간 다툼이 잦아지면 자녀가 바깥으로 나돌게 되면서 지위비행이 증가하고, 부부관계가 단순한 불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부부 폭력이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면 자녀가 보다 심각한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에 대한 적대감은 중비행과 지위비행 모두에서 설명력이 높다. 즉 부모에 대한 적대감은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부부불화, 부부폭력, 부모적대감의 자녀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부 불화	부부 폭력	부모에 대한 적대감	상수	R ²
지위비행	.06*	.04	.16**	10.84**	.05**
중비행	-.00	.11**	.12**	17.51**	.03**

* p<.05 ** p<.01

3) 부모의 감독과 대화

예상대로 부모의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자녀는 지위비행과 중비행의 모든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표 8>). 자녀의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활동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문제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부모의 감독이 없이 방치될 경우 비행에 휩쓸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음을 뜻한다.

부모와의 대화정도는 감독에 비해 상관성이 낮지만 비행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대화가 적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행을 저지르면서 부모와 대화가 단절됨으로써 기인했을 수 있지만 자녀의 생각이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자녀가 비행을 저지름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표 8> 부모감독, 부모와의 대화와 자녀비행간 단순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대화
지위비행	-.22**	-.17**
중비행	-.11**	.06

** p<.01

4) 가정규범과 훈육방식

가정 내에 지켜야 할 가정규칙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지의 여부와 비행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먼저 가정규칙과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에 규칙의 수가 많을수록 심각한 중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표 9>). 이러한 결과는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일수록 자신을 구속하는 규칙들이 많다는 느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비행청소년의 가정에 실제로 지켜야 할 가정규칙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소한 규칙들도 지킬 수 없는 부담감에서 연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녀가 말썽을 많이 부린 결과 규칙이 많이 부과되었을 것이라는 인과론적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지 규칙이 있는가의 존재 여부보다는 이를 얼마나 지키는가의 준수정도가 비행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가정의 규칙을 지키지 않을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르며 특히 지위비행의 경우에 상관성이 높다.

체벌과 칭찬의 구체적인 훈육방식별로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지위비행의 경우에만 차이가 있다. 즉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비행을 적게 저지르며 체벌을 하지 않을수록 자녀가 지위비행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적절한 체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녀의 사소한 비행이 증가하고 반대로 적절한 칭찬에 의하여 사소한 비행이 감소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비행의 경우에는 체벌의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도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심각한 비행에 대한 체벌 효과가

적어서 나타난 결과이거나 혹은 적절한 체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훈육방식의 효과는 가정규칙의 준수에 비해서 상관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가정규범 및 훈육방식의 자녀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정규칙 여부	가정규칙 준수	체벌	칭찬	상수	R ²
지위비행	-.10**	-.24**	-.09*	-.06*	12.34**	.07**
중비행	-.05	-.14**	-.04	-.05	8.51**	.03**

* p<.05 ** p<.01

3. 확대가족과 비행

1) 조부모와의 동거

연구대상자중 조부모와 동거하는 청소년은 친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전체의 12.7%(268명), 외조부모를 포함하여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전체의 16.6%(351명)이다. 친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외조부모를 포함한 동거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친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외조부모를 포함한 동거하는 경우 모두 손자녀의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기대와는 달리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손자녀의 비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0>의 결과는 조부모와의 동거가 손자녀의 중비행과 지위비행 양자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친조부모만 분석한 경우나 외조부모를 포함한 경우 모두 손자녀의 비행과는 관계가 없다.

<표 10> 조부모 동거여부와 손자녀 비행

	친조부모와의 동거			외조부모 포함한 조부모와의 동거		
	동거	비동거	t	동거	비동거	t
지위비행	2.10	1.89	.96	1.91	1.92	.00
중비행	1.10	.77	2.61	1.03	.77	1.98

2) 친족 관계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조부모를 비롯하여 부모의 형제자매 등 친족원과의 접촉이 빈번하다면 핵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가족 간 관계가 그만큼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거는 하지 않으나 빈번히 교류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관여하는 정도가 그만큼 높을 것이며 가족 바깥의 다양한 가족성원들의 관심이나 통제가 자녀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11>은 조부모를 비롯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자매와의 접촉 정도와 자녀의 비행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조부모와의 접촉을 살펴보면, 외조부모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손자녀의 중비행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이 밖의 경우에는 거의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조부모와의 접촉이 손자녀의 비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와의 접촉과 자녀비행과의 상관성은 비교적 일관되게 발견된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삼촌), 외삼촌, 고모와 같은 친족원과의 접촉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지위비행을 적게 저지르고 있어 이들과의 접촉이 자녀의 비행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친족원 접촉과 비행과의 상관관계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친조부 모	외조부 모	전체	큰아버 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고모	이모	전체
지위비행	-.03	.04	.02	.07*	.07*	.05*	.06*	.04	.10*
중비행	-.03	.06*	.00	.02	.06*	.04	.05*	.02	.06

* $p < .05$

물론 부모의 형제자매와의 접촉은 자녀가 어릴수록 빈번히 이루어지는 생애주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비행성이 낮게 나타나는 연령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령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성과 학교(연령) 요인을 통제한 후 접촉의 독립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 <표 12>의 모델 1의 결과인데 여기서 접촉의 효과는 성과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양자간 상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표 12>의 모델 2는 관계의 질적 측면을 포함한 분석 결과이다. 부모의 형제자매와의 접촉 효과를 친척관계의 친밀성(평소 친척들과 가깝게 지내는 정도)과 함께 분석한 결과, 부모의 형제자매들과의 접촉보다 관계의 친밀성이 비행을 억제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모의 형제자매와의 접촉보다는 친밀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들과의 접촉이 비행을 억제하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2> 친족관계, 성, 학교의 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형제와 접촉	친척관계 친밀감	학교	성	상수	R ²
지위	모델1	.08*	-	-.33**	.08**	7.76**	.13**
비행	모델2	.02	-.11**	-.31**	.07**	7.58**	.15**

* $p < .05$ ** $p < .01$

3) 조부모와의 관계

조부모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의 두 가지 차

원에서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표 13>이다. 먼저 조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손자녀의 지위비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비행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이는 앞서 친척간 관계가 친밀할수록 자녀의 비행이 감소하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지위비행과는 상관성이 없으나 심각한 중비행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의 심각한 비행이 적다.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가족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와 조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자녀의 행위에도 긍정적인 준거로 작용하여 심각한 비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13> 부모-조부모 관계 및 손자녀-조부모관계의 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조부모의 관계	손자녀- 조부모의 친밀성	상수	R ²
지위비행	.04	.09**	6.86**	.02**
중비행	.06**	.02	14.18**	.02*

* p<.05 ** p<.01

4) 가족가치

<표 14>의 가족가치와 자녀의 비행성향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양자 간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가족주의와 가족전통을 중시하는 가족의 자녀일수록 지위비행과 중비행 양자 모두 감소하며 가부장적 지향이 강한 가족의 자녀일수록 비행성이 오히려 높다.

특히 가족중심주의적 태도와 비행과의 상관성이 높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가족중심적 태도가 강할수록 비행성이 낮다는 것은 개인의 의사를 앞세워 행동하기보다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가족 전체 관계를 먼저 고려하는 가족주의적 태도를 내면화함으로써 비규범적 행위가 억제되고 있음을 뜻한다.

가족중심주의적 태도가 부부가족의 범위 내에서 부모와 자녀간 유대와 가족상호간의 의사를 중시한다면 가족전통주의는 핵가족을 넘어서서 가문이나 조상을 중시한다. 가족중심주의 경우보다는 약하지만 가족전통주의가 강할수록 비행성 역시 감소한다. 이는 앞에 제시한 확대가족과 비행간의 관계 분석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조상이나 가문의 전통을 중시하는 가족 간 연대가 일탈에 대한 통제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가부장적 태도는 비행과 비례적 관계를 보여준다. 가부장적 가족의 자녀일수록 비행성이 높다는 것은 권위적인 가족관계나 부모의 강력한 통제로부터 느끼는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4> 가족중심주의, 가족전통주의, 가부장주의의 자녀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족중심주의	가족전통주의	가부장주의	상수	R ²
지위비행	-.19**	-.05*	.10**	6.72**	.04**
중비행	-.09**	-.05*	.07**	14.31**	.05**

* p<.05 ** p<.01

3. 종합적 논의

1) 가족의 구조와 기능

지금까지 주제 별로 분석한 가족의 구조와 기능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15>이다.

먼저 가족의 형태적 결손 측면을 보면, 앞의 부분적 분석에서는 현대적 결손과 지위비행의 관련성이 확인되었지만 종합적 분석에서는 지위비행, 중비행 양 비행 모두에서 이의 독립적 효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들 중에는 객관적 요인과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불만이 지위비행과 약한 상관성

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이나 규범과 훈육요인의 독립적 효과는 대체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적개심과 부모의 감독은 가족관계 요인 가운데 대표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폭력이 중비행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의 규범과 훈육과 관련된 요인의 경우 가정내 규칙의 준수 여부가 두 가지 비행 모두에서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인 훈육방법은 지위비행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비행유형 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먼저 가족관련 요인의 전반적인 영향력은 중비행에 비해 지위비행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위비행은 중비행에 비해서 그만큼 가족을 통해 억제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비행은 가족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의 영향을 그만큼 더 받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족관련 요인들 가운데 지위비행은 부모감독이나 대화와 같은 부모-자녀간의 유대적 관계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비해서 중비행은 부부폭력이나 규범준수와 같은 가족 내의 부정적 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15> 가족관련 요인의 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지위비행	중비행
결손가족	형태적 결손	.03	.01
사회경제적 지위	수입	.00	.02
	집안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불만	.08**	.01
	주관적 가정 형편	-.08*	-.01
가족관계의 질	부모에 대한 적대심	.11**	.12**
	부부갈등	.06*	.00
	부부폭력	.05	.12**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감독	.12**	.07*
	부모와 대화	.00	.07*
가정 규범과 훈육	가정내의 규칙 유무	.10**	-.05*
	가정내 규칙 준수	.16**	.12**
	처벌	.12**	-.02
	칭찬	-.00	.02
상수		8.05**	17.53**
R ²		.11**	.06**

* p<.05 ** p<.01

2) 확대가족 관련요인

가족형태, 가족 간 친족관계, 가족가치의 세 가지 영역에 있어 각 요인들의 상대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16>이다.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형태적 확대가족이나 친척과의 단순한 접촉정도는 비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신 친족간 관계의 질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친족 관계의 질의 효과가 매우 크며 중비행에 대한 부모-조부모관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분석 결과에 비해 더 증가되었다.

가족 가치의 독립적 영향력은 단순 분석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족가치 가운데 가족중심주의는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에서 가장 큰 설명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족전통주의의 중비행에 미치는 억제 효과는 단순 분석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부모-조부모 관계의 효과와 함께 중비행에 미치는 확대가족 효과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즉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단순히 친족원과의 친밀감과 같은 정적 요소보다는 부모-조부모와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 전통이나 가족 전체를 강조하는 규범주의적 결속이 비행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확대가족과 관련된 요인들의 분석결과는 결론적으로 형태적 측면이나 단순 교류만으로는 비행이 억제될 수 없으며 나아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가족 간 결속이나 연대를 수반할 때 비행억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동시에 오늘날 형태적인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다양한 확대가족적 요소가 가족성원의 행동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함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16> 확대가족 관련요인의 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지위비행	중비행
가족형태	조부모와 동거	-.03	.01
가족간 관계	친척과의 접촉	.01	.05
	부모-조부모 관계	-.01	.12**
	조부모와의 관계	.01	-.01
	친척과 친밀도	-.14**	.02

		지위비행	중비행
가족가치	가족중심주의	-.17**	-.11**
	가족전통주의	-.02	-.07*
	가부장주의	.09*	.08*
상수		5.78**	13.68**
R ²		.06**	.04**

* p<.05 ** p<.01

V.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인 가족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그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관련 변인을 가족의 구조와 관련된 변인, 가족의 기능적 요인과 관련된 변인, 확대가족적 변인으로 나누어 그 각각이 어떻게 청소년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이론적인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기존의 이론들과 이에 바탕을 둔 경험적 조사연구가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이 확대가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논의에 포함하기 위하여 확대가족 관련 변인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였다.

이 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는 아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식별된 주요 변인들과 비행의 관계를 경험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가족 구조와 가족 기능의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들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행과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확대가족과 관련된 변인들이 비행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상에서 확인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가지는 불만이 자녀의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결손의 경우에는 결손가족의 자녀가 비결손가족의 자녀에 비해 지위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결손으로 인한 비행의 증가를 부모의 부재 사실 자체에서 구하기보다는 부모의 감독과 관심의 부족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분석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일반적 기능과 비행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지위비행은 규범과 정서적 안정의 제공에 실패할 경우 발생 확률이 높고, 중비행은 가족원간의 상호 신뢰를 상실할 때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부간 불화, 부부간 폭력, 부모에 대한 적대감 모두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부불화는 지위비행과, 부부폭력은 중비행과 상관성이 높다. 한편 부모의 감독은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를 감소시키고, 부모와의 대화, 가정규칙의 존재와 준수, 체벌, 칭찬 등은 지위비행에 대해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확대가족과 관련하여,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나 조부모와의 단순한 접촉 빈도는 비행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등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어머니의 형제(외삼촌)와의 접촉은 비행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 친족원과의 관계는 단순한 접촉보다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친밀성이 특히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부모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조부모와의 동거나 접촉에서는 관련성이 없었으나, 조부모와의 친밀성의 경우에는 지위비행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족가치의 차원에서는 가족중심주의, 가족전통주의, 가부장주의 세 변인 모두 지위비행과 중비행 양자와의 상관성이 발견된다. 즉, 가족중심주의와 가족전통주의는 비행을 감소시키고, 가부장주의는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구조와 기능 변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비행보다는 지위비행 쪽이 가족관련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비행은 상대적으로 가족 이외의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요인별로 보면 지위비행은 부모감독이나 대화 등 부모와 자녀의 유대적 관계와 더 많은 관련을 맺고 있고, 중비행은 부부폭력이나 규범 준수 등 가족 내부의 부정적 요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대가족 관련 요인의 종합적 분석 결과를 보면, 조부모와의 동거나 단순한 접촉보다는 구체적인 접촉과 연대가 나타날 때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는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밝혀 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비행 연구에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친구와 공부 압력 등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비행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변인들과 가족관련 변인들의 관련성이 더욱 탐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여러 변인을 모두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준호(1990). “사회학 분야에서의 청소년비행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 청소년연구』 창간호.
- (1994). “한국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연구』 5(1).
- 김준호 · 김선애(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7(1).
- 김준호 · 이성식(1987)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제2권.
- 안호용(1996). “두 개의 家族原理와 새로운 家族意識의 形成”.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2호(통권 63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 Psychology Monographs* 4.
- Braithwaite, J.(1981). “The Mith of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Reconsider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 36-57
- Clark, J. P. and Wenninger, E. P.(1962). “Socio-Economic Class and Area as Correlates of Illegal Behavior Among Juveni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826-834.

- Clelland, R. A. and Carter, T. J.(1980). "The New Myth of Class and Crime", *Criminology* 18 : 319-36
- Erickson, M. L. and Empey, T. M.(1963). "Court Records, Undetected Delinquency and Decision Making".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54: 456-469.
- Glueck, S. and Glueck, E.(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ode, William J.(1970).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The Free Press.
- Hindelang, M. J., Hirschi, T., and Weis, J. G.(1979). "Self-Reported Delinquency: The Illusion of Discrepancy between Self-Report and Official Measur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998-1014.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ouriles, E. N., Murphy, C. M., Farris, A. M., Smith, D. A., Richters, J. E., and Waters, E.(1991). "Marital Adjustment, Parental Disagreements about Child Rearing, and Behavior Problems in Boys". *Child Development* 62: 1424-1433.
- Krohn et al.(1980). "Social Status and Deviance". *Criminology* 18: 303-18.
- Kvaraceus, W. C.(1944). "Juvenile Delinquency and Social Class". *Journal of Educational Sociology* 18: 51-54.
- Loeber, R. and Stouthamer-Loeber, M.(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In M. Tonry and N. Morris(eds), *Crime and Justice: A Annual Review of Research* 7 : 29-149.
- McCord, J.(1979). "Some Child-Rearing Antecedents of Criminal Behavior in Adult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9): 1477-1486.
- Nye, F. I.(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arke, R. D. and Slaby, R. G.(1984).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E. M. Hertherin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New York: Wiley.
- Patterson, G. R.(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Eugene: Castalia Publishing Company.
- _____(1984). "Siblings: Fellow Travelers in Coercive Family Processes". In R. J. Blanchard and D. C. Blanchard(eds), *Advances in the Study of Aggression* Vol. 1, Orlando, Fl.: Academic Press.
- Patterson, G. R., Reid, J. B., and Dishion, T. J.(1992). *Antisocial Boys: A Social Interactional Approach* Vol. 4. Eugene: Castalia Publishing Company.
- Patterson, G. R. and Stouthamer-Loeber, M.(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Pulkkinen, L.(1981). "Search for Alternatives to Aggression in Finland". In A. P. Medstein and M. Segall(eds), *Aggression in Global Perspective*. New York: Pergamon Press.
- Rankin, J. H.(1983).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Social Problems* 30(4): 466-479.
- Reiss, A. J. and Rhodes, A. L.(1961). "Status Deprivation and Delinquency Behavior". *Sociological Quarterly* 2: 135-149.
- Sterne, R. S.(1964). *Delinquent Conduct and Broken Homes*. New Haven, Connecticut: College and University Press.
- Thornberry, T. P. and Farnworth, M.(1982). "Social Correlates of Criminal Involvement: Further Evid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atus and Criminal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505-518.
- Toby, J.(1974). "The Socialization and Control of Deviant Behavior". In D. Glass(ed.), *Handbook of Criminology*, Chicago : Rand McNally.

-
- Tittle, C. R. and Meiyer, R. F.(1991). "Specifying the SES/Delinquency Relationship". *Criminology* 28(2) 271-299.
- Voss, H. L.(1966). "Socioeconomic Status and Reported Delinquent Behavior". *Social Problems* 3: 314-324.
- Wilson, H.(1980). "Parental Supervision: A Neglected Aspect of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3): 203-235.
- Wilson, J. Q. and Herrnstein, R. J.(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ABSTRACT

The Effects of Familial Variables on Juvenile Delinquency

Kim, Joon-Ho^{*}·An, Ho-Yong^{**}·Kim, Sun-Ae^{***}·Kim, Sun-Up^{****}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family by carefully examining survey data. Specifically, we ask to what extent family-related variables, such as family structure, family function, and extended family, can account for status delinquency and heavy delinquency of juveniles. Our research integrates structural aspect with functional aspect of family in order to specify family related variables. In addition, extended family variabl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reflect the particularity of Korean society.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status delinquency is influenced more than heavy delinquency by family variables. The status delinquency has greater correlation with parent-children relationship, while the heavy delinquency is affected by variables such as violence between the couple. The extended family variables do restrict delinquency when concrete tie or solidarity exists. To conclude, our research has established the relational pattern between family related variables and delinquency in a more sophisticated way.

* professor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 professor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 professor of child studies, Korea Nazarene University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at Korea University